쉬운 전문용어

수집·제안·편집　이 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kwangkeunyi.snu.ac.kr

배경

사그라들 수 있다. 전문지식이 전문 학자들에만 머문다면 그 분야는 그렇게 쇠퇴할 수 있다. 저변이 좁아질 것이고 깊은 공부를 달성하는 인구는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

전문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다면, 그래서 더 발전할 힘이 많이 모이는 활기찬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면. 이러면 그 분야를 밀어올리는 힘은 나날이 커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문제제기와 답안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의 성과는 널리 이해되고 점검받을 수 있게된다.

그러므로 쉬운 전문용어가 어떨까. 전문개념의 핵심을 쉽게 전달해주는 전문용어. 학술은 학술의 언어를 –우리로서는 소리로만 읽을 원어나 한문을– 사용해야만 정확하고 정밀하고 경제적일까? 아무리 정교한 전문지식이라도 쉬운 일상어로 짧고 정밀하게 전달될 수 있다. 시에서 평범한 언어로 밀도 있게 전달되는 정밀한 느낌을 겪으며 짐작되는 바이다.

쉬운 전문용어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테스트되는 생태계. 이것이 울타리없는 세계경쟁에서 우리를 깊고 높게 키워줄 비옥한 토양이다. 시끌벅적 쉬운말로 하는 학술의 재미는 말할것도 없다.

원칙

쉬운 전문용어를 만들때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문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쉬운말을 찾는다.
- 이때, 어깨에 힘을 뺀다. 지레 겁먹게하는 용어(불필요한 한문투)를 피하고, 가능하면 쉬운말을 찾는다.
- 전문용어 하나에 쉬운 한글용어 하나가 일대일 대응일 필요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풀어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미의 명확한 전개.
- 영문 전문용어는 해당 우리말 다음에 괄호안에 항상 따라붙인다.
- 도저히 우리말을 찾을 수 없을 땐, 소리나는대로 쓰고 괄호안에 영문 전문용어를 따라붙인다.
- 기존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기존 용어사전이나 이미 널리퍼진 용어지만 쉽지않다면, 보다 쉬운 전문용어를 찾고 실험한다.
- 쉬운말은 순수 우리말을 뜻하지 않는다. 널리 퍼진 외래어라도 쉽다면 사용한다.

전문용어